

매월 1만 원

따뜻:한난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

따뜻하
스스
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

햇살이 좋아 바깥으로 발걸음을 해봅니다.
선선한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네요.
봄에만 마주할 수 있는 자연의 모습들.
이 모습을 보려고 우리는 봄을 기다렸나 봐요.
찰나의 봄이 가버리기 전에 제대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봄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라면 더욱 완벽하겠네요!

사랑하고
싶어 너랑

Mar+Apr 2023
Vol. 223

Mar+Apr 2023 Vol. 223

Contents



COVER STORY

사랑하는 사람과의 나들이, 초록빛 세상,
아름다운 꽃들, 따사로운 날씨.
이 봄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랑하세요.

표지 일러스트 정아리

- www.kdhc.co.kr
- www.youtube.com/c/kdhcmedia
- blog.naver.com/kdhc2017
- www.facebook.com/FKDHC
- www.instagram.com/kdhc_on

발행일 2023년 4월 14일(통권223호)
 등록 1993년 11월 30일
 신고번호 성남, 마00027
 발행처 한국지역난방공사
 발행인 정용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 02)786-2999

이 책의 무단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난
웹진 바로가기



42

SECTION

따뜻한, 마음

04
테마 필치기
 사랑하고 싶어,
 너랑

SECTION

뜻깊은, 걸음

12
혁신, 더하기
 업무자동화시스템
 'RPA'로 혁신에
 가까이!

SECTION

한번더, 웃음

20
반가운 만남
 안나의 집
 김하중 신부

SECTION

난방, 요즈음

38
취미 유발자
 일단 오르고
 보는 거야!

06
테마 에세이
 이 봄, 사랑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14
효율, 늘리기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가 되다

24
이런 문화
 AI의 넥스트 레벨
 챗GPT, 게임
 체인지가 될까?

42
여기서 행복
 경영지원처 인사부
 이재훈 팀장&
 판교지사 고객지원부
 김은지 대리 가족

08
생각 보태기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16
안전, 곱하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안심하는
 일터를!
 -재난안전부

28
그림의 위로
 성근한 봄이
 되기를
 앙리 마르탱

46
듣는 서점
 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다

10
특독 양케트
 사랑을 듬뿍 담아
 당신께 드려요!

18
투명, 높이기
 청렴·윤리경영 추진
 한남도 합니다

30
요즘 밥상
 하와이안
 무스비

48
함께 시너지
 비잔티움 일산

32
에코 트레블
 봄 송어처럼
 봄 바다
 헤엄치는 섬
 여수 거문도

52
한난 뉴스

36
콘텐츠 in 에너지
 가수 윤도현의
 유쾌한 환경운동
 다큐멘터리
 <널 지키겠다는 약속>

54
독자와 함께

55
한난 SNS



04



16



32



38



46

사랑하고 싶어,

사

랑합니다.

누군가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 전하는 말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말을 자주 하나요?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을 자주 주고받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쑥스럽다는 핑계로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사랑은 표현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어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굳이 말해야 알아?’라는 생각으로

표현하기를 미룬다면, 시기를 놓쳐버릴지도 몰라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마냥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 마음껏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처음은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습관처럼 생각해 보세요.

‘습관이 무섭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랑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반려동물, 식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을 표현할 대상은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울봄에는

더 많이 사랑하기를, 더 많이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아침, 간혹 사랑함에 있어서 ‘나는 이만큼 사랑을 주는데,

상대방은 왜 그렇지 않지?’라는 생각을 하며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사랑법입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지 않거든요.

바라는 것 없이 사랑받고, 줄 수 있는 스스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아픔을 느낄 만큼 사랑하면 아픔은 사라지고

더 큰 사랑만이 생겨난다는 역설을 발견했다.”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던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더 큰 사랑을 발견하고 실천하기를 응원합니다.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기왕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김에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사랑하고 싶어, 너랑!”

랑



글 백영옥 작가

봄에는 사랑 소설을 읽는다. 이 찬란한 봄이 혹독한 겨울 때 문에 더 환해진다는 사실을 끝내 알게 된 사람처럼 말이다. 이승우의 소설 <사랑의 생애>에서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올 때 당신은 불가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은총이나 구원이 그런 것처럼 사랑은 자격의 문제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을 발견했을 때, 나는 이 비범한 사랑의 고찰에 여러 번 밀줄을 그었다.

만약 사람의 몸이 ‘사랑’의 숙주일 뿐이라면 모든 면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저지르는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커피를 쏟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잠 못 드는 밤 “자니?”라는 문자를 보내놓고 수없이 이불킥을 날리던 날들을 말이다.

소설가 이승우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은 인간 숙주가 필요했던 사랑이 저지른 짓이다. 질투에 눈이 멀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을 그녀에게 쏟아냈던 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연인의 작업실 창문에 돌멩이를 던지려 한 일, 헤어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끊었던 일, 그에게 남긴 원망 가득한 저주의 말들까지 모두 다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동안 우리가 저질렀던 한심한 일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 같아 어쩐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

‘내 탓이 아니다. 모두 사랑이 저지른 짓이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이 봄, 사랑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소설 <사랑의 생애>가 3년 전,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한 대학 후배 선희에게 ‘다시 사랑’을 느낀 남자의 이야기라는 건 사랑이 얼마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처럼 일어나는 것인지 보여준다. 사랑한다고 수줍게 고백하는 선희 앞에서 자신은 누구도 사랑할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던 3년 전의 그 남자, 형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미 사랑하는 남자 영석과 함께 행복해하던 선희에게 그는 왜 다시 사랑을 고백했을까. 이런 뜬금없음, 최악의 타이밍에 솟아난 이토록 부적절한 사랑을 형배는 왜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걸까. 사랑의 이런 속성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라는 동사를 붙인다. 그렇다. 사랑은 나도 모르게 ‘빠지는 것’이다. 만약 수영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물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사랑했던 그와 나를 사랑하는 그 사이의 나. 아담과 이브 사이에 낀 뱀처럼 곤장 삼각관계가 만들어진다.

너와 나의 사랑의 시차는 자꾸 벌어진다. 사랑이 괴로운 건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일단 사랑이 시작되면 우리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다가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가오는 그 사람의 마음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때에는 유독 내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사연이 많았다. 고백해야 할지 말지, 헤어질지 말지를 고민하는 수많은 ‘사이’에서 사랑은 그렇게 피고 지는 꽃처럼 오가다 멈추고 다시 이어진다. 사랑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내릴 수 없듯 사랑 고민에 대한 내 대답 역시 사랑의 처지에 따라 달랐다. 하지만 ‘사랑을 시작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에 내 대답은 이제 단순해졌다.

사랑하시라. 고백하시라. 후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보다는 해서 생기는 후회 쪽이 낫다. 인간에게는 ‘자기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가 있다. 죽기 전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삶의 목록 중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때 그녀에게 고백해야 했다’라는 것이다. 사랑할 기회가 있었는데 잡지 않고 놓친 사람에게 남는 건 ‘후회’가 아니라 ‘회한’이다.

후회가 상처라면 회한은 흉터다.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희미한 자국을 남긴다.

시도했던 것에 대한 끝없는 후회에 우리는 수많은 자기 합리화를 시도한다. 내 경우, 실패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 많은 연애 소설은 한 줄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이 쉬지 않는 질문이라는 정의 역시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에 실패한 후, 내 친구는 유학에 도전해 박사 학위를 받고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일하게 됐다. 실패한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깊게 공감하게 된 사람도 많다. 종종 실패는 성공보다 삶을 더 깊게 만든다. 깊어가는 봄날, 사랑 때문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있다면 심리학의 지혜를 빌려 용기내 보시길. 만약 고백에 성공한다면 이루어진 사랑으로 봄빛은 더 환해질 것이고, 실패한다 해도 당신의 방어 기제들이 이 실패를 앞으로의 사랑에 필요한 좋은 거름으로 사용할 테니. 🌱

백영옥 <공, 어른의 시간이 시작된다>, <다른 남자>,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등 다수의 책과 칼럼을 썼다. 또한 ‘백영옥의 낭독’과 MBC 표준 FM ‘라디오 디톡스 백영옥입니다’의 DJ로 활동했으며, ‘라디오 북클럽 백영옥입니다’에서 탐독가로서 좋은 책을 소개하는 일을 했다.



완연한 봄입니다. 맑은 하늘, 초록빛 세상을 보고 있으니 저절로 이 계절과 사랑에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날이 좋아서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 봄, 꼭 빠져있는 게 있나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이 '사랑'에 빠진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봄이니까요.

글 편집실



독자 허재도 님
"흙, 나무와 사랑에 빠졌어요~!"



저는 흙, 나무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텃밭으로 가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거든요. 조그마한 텃밭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는 마늘과 각종 새싹 등을 보는 재미가 큼니다. 자연이 가장 큰 심신 안정제가 되어 주는 것 같아요. 특히 3~4월 봄벌이 들 때 나는 흙내음은 어느 커피향보다도 진하고 달달해요. 혹시 바쁜 일상에 지친 분들이 있다면 자기만의 텃밭을 가져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열수송처 열수송관리부 황정해 주임
"저 아무래도 발레를 사랑하네요."



사랑에 빠진 것을 생각해 보니, 취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릴 때도 스트레칭과 담을 쌓고 자란, 인간 통나무인 제가 작년부터 발레를 배우고 있거든요. 주변분들 모두가 놀라는 취미이지만, 어느덧 8개월 차 발레 꿈나무가 되어 하늘하늘한 발레복도 구입했습니다. 아! 물론 아직도 뻗뻗함은 그대로이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웃기지만요.^^;; 하고 나면 발레 음악도, 동작도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를 모두 풀어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취미입니다. 선후배 여러분도 올해는 발레에 도전해 보는 것 어떠세요? 몸도 마음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장담합니다.♡

독자 박난희 님
"늦은 나이에 빠진 유튜브! 좋아요♡"



"나이만 먹고 무료하다"라는 제 말에 아들이 권하더군요. "엄마도 유튜브 해봐~"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제 말에 아들은 "일단 배우면서 생각해"라며 용기를 줬어요. 그때부터 아들에게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도대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같은 나라 말인데 못 알아듣는 내가 너무 답답하기도 했지만 이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은근히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누군가가 "요즘 뭐해?"라고 물으면 "나 요즘 유튜브 배워"라고 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요리 채널을 할까, 뜨개질 채널을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유튜브와 사랑에 빠진 요즘의 제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독자 김희 님
"아이브에게 러브 다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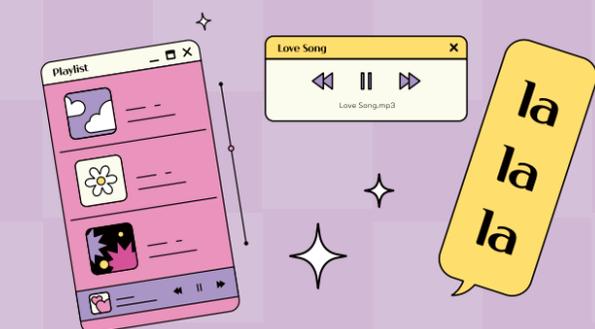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 가수 '아이브'를 아시나요? 딸아가 아이브와 사랑에 빠졌어요. ㅎㅎ 용돈 받으면 아이브 포토카드도 사고, 앨범도 사고, 엽서도 사느라 바쁘답니다. 저도 딸아이 덕분에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네요~!



독자 방윤희 님
"여러분도 책을 사랑해 보세요~!"



2017년도에 시작한 직장인 독서 모임을 7년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총무를 맡았어요. 첫 독서회 멤버이자, 독서 강사 경력 때문인가? 싶었지만, 아마 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느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책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한없이 무너지는 때가 생기곤 하는데요. 사람이 힘들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와 같은 그런 때요. 그 순간들을 지탱해 준 것이 바로 책이었습니다. 독서회 가입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권, 일 년이면 총 열두 권의 책이 회원들의 추천 도서로 오롯이 채워집니다. 고전과 현대소설을 넘나들며 역사와 철학, 과학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망라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수 있죠. 한 권의 책이지만 마치 여러 권의 감정을 읽는 듯한 느낌. 다른 사람의 인생과 생각을 치열하게 만나는 그 과정이 독서회를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



5+6월호 생각 보태기 주제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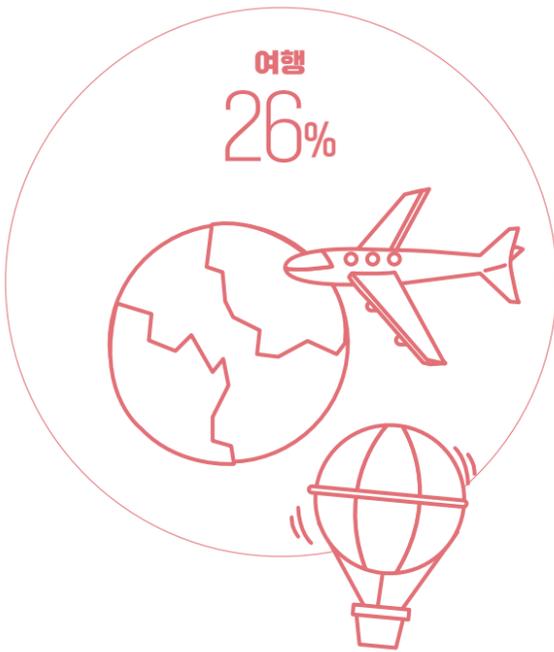
5+6월호 주제는 '나에게 무의미한 것은 없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의미 있는, 소중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해 보세요. 길든, 짧은 마음이 담긴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감동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난> 웹진을 통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기간 : 2023년 5월 17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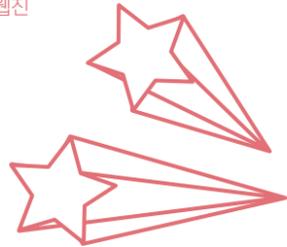
사랑을 듬뿍 담아 당신께 드려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기 청정기를 선물해 주고 싶다는 독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마시는 공기를 언제나 맑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네요. 참 예쁜 마음입니다. 공기 청정기처럼 생활 가전을 선물하고 싶다는 사연이 또 있었어요. 바로 안마기인데요. 안마를 해드려도,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녀도 도통 좋아질 기미가 없는 엄마의 어깨가 얼른 나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각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정말 실용적인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특독 앙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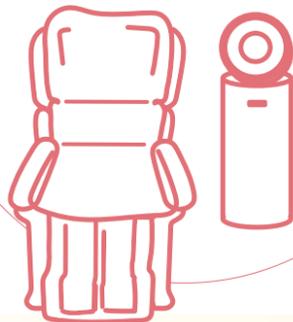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물하고 싶은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선물한들 아깝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고른 선물은 더욱 의미가 있겠죠?
<따뜻:한난> 독자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 듬뿍 담긴 선물을 공개합니다.
글 편집실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웹진



부모님을 생각하는 <따뜻:한난> 독자들의 마음 따뜻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엄마도 이런 멋진 곳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남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유럽여행을 다녀왔는데 싸우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엄마에게 세상에는 아름답고 멋진 곳이 많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빠를 위한 사연도 있었어요! “아버지 퇴직 선물로 3박 4일 남도 여행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군 제대 후 한 번도 못 가서 꼭 가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아무쪼록 행복한 여행을 꼭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든 부모님은 자식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생활가전
공기 청정기, 안마기

22.2%



의류 및 잡화
옷, 등산화

18.5%



누구에게나 처음은 특별하다고들 하잖아요. ‘첫 조카’를 위해 옷 선물을 하고 싶다는 독자도 있었습니다. 첫 조카여서 특별한 것도 있지만 입학, 자퇴, 재입학, 편입, 군대, 어학연수, 교환학생... 여러 과정을 마치고 사회

에 첫발을 내디딘 조카가 기특해서라고 하네요.

이런 의미라면, 조카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좋은 일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남편을 위한 아내의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는 사연도 공개합니다. “늘 가족을 생각하느라 자신에게 쓰는 것은 인색한 남편에게 등산화를 선물하고 싶어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등산이거든요. 좋아하는 거 조금 더 편하고, 즐겁게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올봄에는, 아내가 선물한 등산화를 신고 즐거운 산행하세요! 아,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라면 더욱 좋겠네요.

아름다운 자연
밤하늘, 꽃

14.8%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무수히 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한 독자의 사연입니다. 참 낭만적이지 않나요? 요즘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독자는 가족들에게 반짝이는 밤하늘을 선물하기 위해 천문대가 있는 곳이나 몽골, 네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라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밤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만 같아요. 꼭 별을 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봄과 어울리는 꽃을 선물하고 싶다는 독자도 있었어요. 수선화나 히아신스가 봄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말이지. 선물을 받고 꽃처럼 화사한 미소를 지을 누군가를 상상하니 그 기운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기타
손편지, 폴라로이드 카메라

7.4%



추억하기 가장 좋은 선물들도 있어 소개합니다. 먼저 폴라로이드 카메라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나 소장하고 싶은 것,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만큼 그 의미가 확실한 게 또 있을까요?”라고 전한 독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인 것 같아요. 좋은 순간들을 기록하고, 훗날 추억할 수도 있잖아요. “감정 표현에 서툰 무뚝뚝한 딸인데, 진심을 담은 손편지로 엄마에게 감동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답한 독자의 ‘손편지’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 쓴 편지는 언제고 꺼내 봐도 추억이자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손편지 어떠신가요? 추억과 감동은 두 배가 될 것입니다. 🌸

5+6월호 특독 앙케트 주제 늘 지내고 다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없으면 하루를 못 보내는 물건이 있을 텐데요. 너무 필요해서, 늘 지내고 다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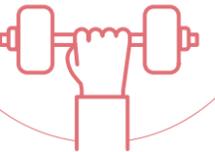


<따뜻:한난> 웹진을 통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기간 : 2023년 5월 17일까지

유독 가족을 위해 선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중 가장 감동적인 사연이 있어 소개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건강은 뒷전이었던 어머니께 건강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단 하루라도 고통 없이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효심이 어머니께 꼭 전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엄마를 위한 사연이 또 있었는데요. “엄마에게 주름 시술권을 선물하고 싶어요. 갱년기가 심하게 오셨는지 요즘 많이 우울해하시거든요. 시술로 얼굴 주름도, 마음 주름도 짝 퍼질 수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엄마의 마음까지 보살피는 <따뜻:한난> 독자들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건강

11.1%



업무자동화시스템 'RPA'로 혁신에 가까이!

우리의 업무 환경이 바뀌고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 및 PC-OFF제 적용 등으로 제한된 업무시간 내 업무를 끝내야 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책 이행 및 업무 혁신 신기술 도입을 요구한다.

정보시스템처 경영정보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에 발맞춰 업무자동화시스템(RPA)을 개발했다.

글 편집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건 좋은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 업무를 끝내야 하는 게 힘들어요. 단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으니, 시대에 맞게 비대면, 원격 등 업무를 자동화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바뀐 상황에 적응하느라 힘드시죠?
직원분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려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업무자동화시스템(RPA)을 개발했습니다.

업무자동화가 뭔가요? 궁금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업무자동화)란, 정형화된 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 기술입니다. 화면상 특정 위치에서 지정된 행동을 수행하는데요. 시스템 및 프로그램(엑셀, 한글 등) 간 교차되는 업무를 사람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업무자동화 기술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정보부는 현재 RPA 로봇을 개발해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지사별 운영실적 마감 확정, 부가세 불부합 대사, 클라우드 점검 및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업무자동화 기술이 실제 업무에 적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문의하셨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서 노동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큼니다. 프로세스 자동화에 따른 휴먼에러 제거로 업무 정확도도 향상되고요. 또한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자동화 업무 영역을 확장해(OCR, 챗봇 등 시 신기술 접목) 기반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오호, 기대하겠습니다!

RPA 자동화 과업 리스트

지사별 운영실적 마감 확정(운영총괄부)

- 통합운영시스템에서 전사 운영 실적 확정

부가세 불부합 대사(재무부)

-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사 세금계산서를 전부 다운받아 불부합 데이터 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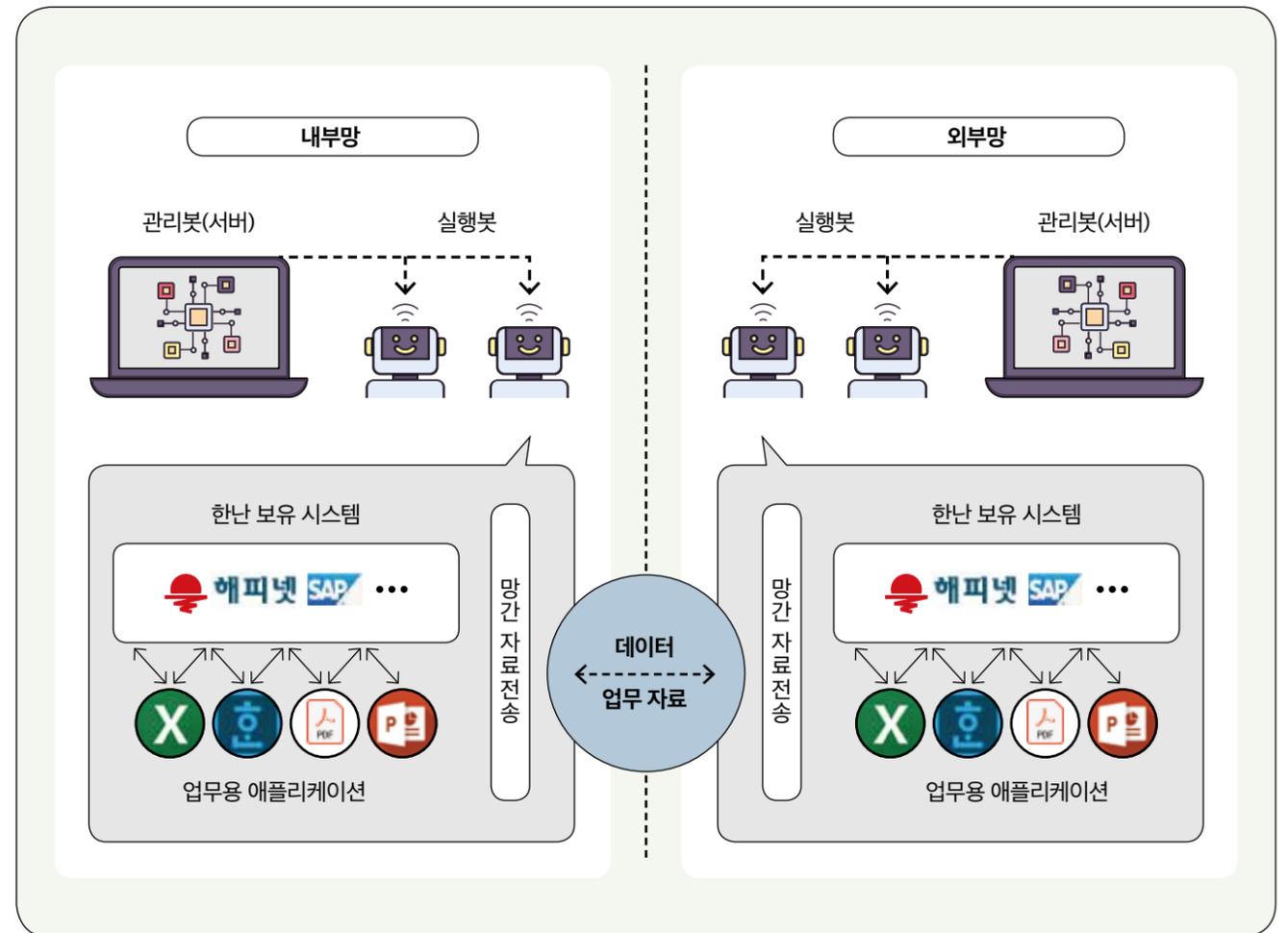
클라우드 점검 및 보고(경영정보부)

- 클라우드를 점검하고 이상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자송부

업무자동화 기대 효과

-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
- 자동화를 통한 업무시간 및 운영 비용 절감
- 로봇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휴먼에러 감소
- 업무 오류 감소, 처리 속도 개선으로 고객 경험 향상 📈

목표 시스템 구축모델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가 되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국내 최초로 열에너지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했다. 열에너지와 열 및 전기에너지 부문에서 14개 사업장이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이는 한난이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을 이미지로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글 편집실



저탄소제품 인증은 무엇인가?

저탄소제품 인증은, 제품 생산 시 과거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국내 동종업계에서 동일 제품을 만들 때보다 탄소 배출량이 낮으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해주는 제도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았나요?

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해 2015년부터 노력했어요. 초기에 화성지사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 시범인증을 진행했는데요. 갱신 기준 미충족으로 인증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인증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어요. 저탄소제품 검증 및 인증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전사 탄소 배출량 분석 및 인증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죠. 그 결과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 신청과 취득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표를 함께 볼까요?

환경 성적표지 18개

저탄소제품 14개

해당 지사	취득일
동탄, 청주, 용인, 세종, 고양, 중앙, 평택, 분당, 양산, 김해 10개	'22.02.28.
화성, 파주, 판교, 광고, 삼성 5개	'22.05.30.
대구, 수원, 강남 3개	'22.09.30.
해당 지사	취득일
동탄, 청주, 용인, 세종, 고양, 중앙 6개	'22.06.27.
화성, 파주, 판교, 광고, 삼성 5개	'22.09.30.
대구, 수원, 강남 3개	'22.12.20.

그다음의 과정도 궁금해요.

지역난방 열사용자 중, 녹색제품 구매실적 의무 제출 대상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근거를 마련했어요. 또한 녹색소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한 지사의 열·전기 사용자에게 녹색제품 홍보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유지를 위해 관련 기준을 개선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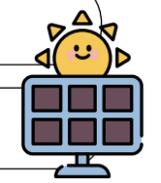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지역난방 사용자들이 열에너지를 녹색제품 구매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난은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다른 에너지 기업과 차별화된 탄소 배출 저감 노력으로 ESG 경영을 선도하겠습니다.”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집단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의 차별화된 저탄소 활동으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함께 보시죠!



-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공급 제품의 가치 향상**
- 친환경성이 입증된 열전기 제품에 대해 **저탄소 활동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
- 열 사용자를 그린슈머로 자동 전환해 **수요개발 동력 확보**
- 동종업계 최초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ESG 등급 향상에 기여**
- 지역난방 사용자에게 **녹색제품 구매활동 참여 기회 제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안심하는 일터를!

우리가 누리는 안전한 일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으로부터 얻어진 귀중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난을 비롯한 관계 시설,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빠 움직이는 재난안전부를 만났다.

글 편집실 사진 정우철 영상 최의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부

재난안전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재난안전부는 태풍, 지진 등의 '자연 재난'과 화재, 폭발,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예방, 대비, 복구체계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부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 업무의 기본이 되는 '재난안전체계 수립', '재난안전 매뉴얼 정비'를 비롯해 재난 예방, 대비를 위한 '취약시기별 안전 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 점검 총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재난 대응 훈련 총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부에서 일하려면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책임감'입니다. 한난이 관리하는 시설들은 국가의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중요 시설이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시설들을 지키는 일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때에도 안주하지 않고,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며 꾸준히 노력해야 해요.

한난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2018년 이후 처음인데요.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 일까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재난분야의 대표적인 훈련입니다. 저희 재난안전부에서 기획·총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다년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난안전 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분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바탕이 되



왼쪽부터 차운병 차장, 이문기 부장, 강현민 대리, 박영민 주임

었던 것 같아요. 또한 동탄지사에서 지사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한난 대표 훈련을 하나 된 마음으로 수행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가 미션입니다. 재난안전부는 이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한난이 관리하는 시설, 설비들은 국가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합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죠. 우리 공사, 동료, 가족 나아가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올해는 '재난 발생 시 공사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사업 계획을 설정해 세부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열·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 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공사 핵심 기능(열·전력 공급) 유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도입·활용'과 '기능연속성계획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재난 시 관련 기관들 간의 신속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으로, 본사 및 지사에 기기를 도입하고 안전한국훈련 등 훈련 시 활용함으로써, 실제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 시 기관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립하는 관리 전략으로, 현재 본사 및 지사 사업장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기능연속성계획 운영 이행상태에 대한 전반사항을 점검·개선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부여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전 사업장 대상 취득·갱신함으로써, 한난의 대·내외적 안전 신뢰도 향상 및 실질적인 재난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지사의 안전 담당자분들을 비롯한 많은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힘써주신 덕분에 안전한 한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노력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부의 의미미한 성과가 궁금합니다.

부의 모든 구성원이 재난안전분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 최근 몇 년간 개인 및 단체 표창을 다수 수상했습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을 시작으로, 2020년 산업부 주관 '재난안전 관리 우수기관 장관 표창' 및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비 훈련 우수 시나리오 공모 장려상 수상',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 문화 유공 장관 표창',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 등급 달성 및 장관 표창'까지 다양한 수상 실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3년 재난안전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항상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중대 재난 피해 Zero'입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예방하고 대비하며,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올해 설정한 사업 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목표 및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부적으로는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 평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의 업무에도 정진하여 대외적으로도 의미미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청렴·윤리경영 추진 한남도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패사건을 방지할 목적으로 2022년부터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확정해 시행 중이다. 공정하고 청렴한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한남도 이에 동참했다. 기획재정부의 '윤리경영 표준모델'과 한남의 투명경영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문화 조성을 위해 연구 용역, 사례분석, 공공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확정했다. 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파악, 윤리위험 통제활동, 내·외부 신고제도,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까지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되었다. 공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기관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윤리경영 표준모델

정부는 내 사비를 게기로 국민들의 불이전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비서모범 구축경영



#지원체계



#윤리의식 확립

한남은 기관장 주관으로 윤리경영 선포식을 시행했다. 또한 다짐 한마디, 4행시, 슬로건 등 윤리인권 실천주간을 운영해 윤리의식을 확립했다.

#관리체계 구축

한남은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 이행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실시하며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한남은 윤리위험을 기관의 핵심위험과 기타 일반위험으로 구분해 파악했다. 핵심위험에는 외부감질, 산업안전, 환경, 정보보안, 에너지복지요금 등이 포함되었다. 일반위험에는 내부감질, 성희롱, 회계부정, 기록물관리, 인

#윤리위험 파악



한남은 식별된 윤리위험별로 통제활동을 1:1 매칭해 관리했다. 예를 들면 감질-실태조사, 이해충돌-자기진단, 환경-배출농도 공개, 정보보안-지도점검 등이다.

#윤리위험 통제활동

한남은 IT 기반의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이해충돌방지 관련 제한·금지행위 신청을 관리하고 있다.

#윤리경영 모니터링



“한남은 공익 창출에 앞장서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청렴과 상생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남은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 레드회선을 운영 중이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 감사자문위원회의 같은 외부 견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내·외부 신고제도를 마련했다.

#내·외부 신고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힘껏 끌어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33년 전 푸른 눈의 김하중 신부는 떠나면 이국땅에 발을 내디뎠다. 경기도 성남 지역 빈민 사목을 시작으로 노숙인과 따뜻한 밥을 나누고, 탈가정 청소년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고 있다. 매일 아침 앞치마 끈을 질끈 묶으며 길 위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의 행보는 오롯이 ‘사랑’으로 수렴된다. 아낌없이 주고 나눠도 닳지 않는 사랑은 ‘사람’을 힘껏 끌어안는다. 온기를 나누며 작은 기적을 만드는 사랑의 힘에 대하여.

글 김주희 사진 정우철 영상 최의인



안나의 집
김하중 신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안나의 집'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무료 급식소 운영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 안나의 집은 '길 위에 서 계신' 분들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노숙인과 탈가정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적응을 돕습니다. 노숙인 급식소를 비롯해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노숙인 리스타트 자활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숙식 제공 및 의료 서비스, 취업 서비스, 법률 상담 등도 함께 진행합니다. 대다수의 노숙인들은 불안정한 청소년기를 보낸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청소년기부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를 위해 가정에서 위기를 겪고 있거나 가출한 청소년을 위한 쉼터와 세어하우스 등 6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죠. 안나의 집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신까지, 길 위에 선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갑니다.

Q. 일찌감치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걸 목표로 삼고 한국에 오셨다고요. 한국에 처음 오게 된 당시를 반추하신다면요.

A.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하면서 김대건 신부님과 대한민국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1990년 5월에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비행기에서 내리고 깊이 숨을 내쉬 후, '지금부터 이곳이 내 땅이고, 이 민족이 내 민족이다'라고 다짐했습니다. 1992년 성남으로 온 후 지금까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웃음).

Q. 30년 넘는 시간 동안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A. 물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매일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 봉사자와 후원자들을 만나면서 되레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희생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은데, 실은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선물하고 나면 손은 텅 비게 마련이죠. 두 손이 비어 있기에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안나의 집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가장 큰 울림을 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A. 모두 울림을 전해줍니다. 어제는 지팡이를 힘겹게 든 할아버지가 안나의 집 간판을 보더니 안도의 숨을 내쉬더라고요. 멀리서 이곳에 왔는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을까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데 저 또한 몽클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그릇을 비우는 어르신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애써주시는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참 소중한데요.

Q. 신부님의 저서 <사랑이 밥 먹여준다> 중에서 '밥은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삶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 등의 글귀가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신부님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사랑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죠. "40일 동안 단식해도 살 수 있지만, 4일 동안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죽는다"라고요. 음식보다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저 또한 매일 아침 봉사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음으로 봉사합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마음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세'로 임합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3a'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accogliere(환영), ascoltare(듣다), amare(사랑)를 의미하죠. 누구에게든 환영의 인사를 건네고 각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경청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곧 사랑의 실천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지역난방공사 임직원 여러분
 몇년전부터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평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김하중 김하중
 2023. 3



Q.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안나의 집 후원을 통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도움이 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리가 하는 일에 깊이 공감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이 관심에서 시작하듯,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보내주는 관심과 응원은 매 순간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안나의 집은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을 더욱 가치 있게 해줍니다.

Q.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비결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결국 나에게도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가까운 주변을 넘어 타인, 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면 내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안나의 집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바람을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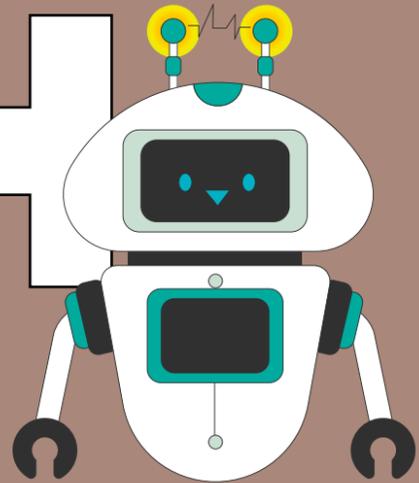
A. 오후 4시부터 배식하는데, 많은 분이 오전 10시부터 줄지어 기다립니다. 어느 날 이곳에 왔을 때 줄 서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때가 되면 문을 굳게 잠그고 열쇠를 버리고 싶어요(웃음). 더이상 복지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아름다운 사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밥을 지으며 많은 이와 사랑을 주고받겠습니다. 🍌

AI의 넥스트 레벨 챗GPT, 게임 체인저가 될까?

AI 시장 판도를 뒤흔든 대형 신인이 나타났다. 최근 '오픈AI'가 선보인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챗봇보다 한층 정교하고 혁신적인 데다 개인화되었으며 인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GPT는 개인의 생활양식은 물론 사회 전반을 아우르며 거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챗GPT가 쓰아 올린 파급력과 가능성을 짚어본다.

글 김주희

AI



대형 시루키의 등장 전 세계가 열광하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대화하는 챗봇은 일반적으로 요청과 응답 구조를 충실히 반영해왔다. 초창기에 등장한 챗봇의 경우, 단순한 질문을 분석해 정제된 답변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이후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챗봇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처리하는 '자연어 이해(NLU)' 기술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이 기술이 한층 진일보하면서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공동 설립에 참여한 개발사 '오픈AI'가 선보인 AI 대화형 챗봇 '챗GPT'가 그 주인공이다.

챗GPT는 '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핵심은 'G', 즉 생성형 AI*에 있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엔진이 기존에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수집해 보여준다면, 챗GPT는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해 보여준다. 사용자가 물어볼 때마다 창조한 결과를 내놓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해 다음번에는 똑같은 질문이라도 더욱 정교한 결과물을 내놓는다. 기존 검색 엔진과는 완전히 다른, 전에 없던 이 신개념 챗봇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처음 공개된 이후 닷새 만에 가입자 100만 명, 출시 40일 만에 하루 사용자 1천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외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생성형 AI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창조하는 인공지능 기술

끊임없이 배우고 깨우치며 사람과 통하는 기술

챗GPT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AI챗봇과 기능과 기술 측면에서 차별화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챗GPT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화 전후로 맥락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는 기존 챗봇과 달리 챗GPT는 이전 대화까지 기억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덕분이다. 사용자와 나눈 이전 대화에서 말한 내용을 기억해뒀다가 후속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실수도 인정한다. 질문에 틀린 답을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지적하면 즉시 인정한다. 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 해당 내용을 학습했다가 추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챗GPT는 일반 챗봇과 비교해 알고리즘 학습법부터 다르다. 오픈AI가 2020년 선보인 GPT-3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GPT-3.5로 만든 대화형 텍스트 생성 모델의 매개 변수는 무려 1천 750억 개에 달한다. 여기에 실수 기반의 반복적 강화 학습이 적용됐는데, 시가 반복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의 방법을 터득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사용자들과 대화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실수를 바로잡도록 훈련된 것이다. 기존 챗봇은 답이 정해진 데이터를 학습한 방식인데 반해 챗GPT는 대화를 통해 계속 배우면서 사람과 대화할 때 유연하게 대응한다. 1분 전에 한 질문에 이미 챗GPT가 답변한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답변은 계속 달라지면서 발전하는 식이다.



챗GPT가 던진 충격과 신드롬 넘어 미래를 바꿀까?

젊은층 사이에서 챗GPT는 만능 치트키로 통한다. 정보 요약, 번역, 에세이, 코딩, 시, 그래프 제작, 악성코드 분석, 웹페이지 생성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양자 컴퓨팅을 쉬운 용어로 설명해줘” 같은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부터 “10살 아이의 생일 축하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을까?” 등 개인적이며 제법 정교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한국어 질문에도 한국어 문장으로 답을 해준다.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프로그램 코딩뿐만 아니라 영문서 작성 및 교정 등 다양한 업무에서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입소문을 타면서다. 활용 노력을 공유한 글과 유튜브 영상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챗GPT 사용법은 물론 어떤 명령을 입력하면 최적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챗GPT를 활용한 블로그이나 영어 공부, 취업 준비 등 실용적인 활용법을 공유한다.

이처럼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을 하고, 업무를 대신해 주며 일상에 필요한 조언까지 해주는 시가 우리네 삶에 불쑥 찾아든 것이다. 챗GPT의 등장은 개인을 넘어 산업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챗GPT로 인해 구글, 네이버 등 기존 키워드 중심 검색 엔진 생태계가 지각 변동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중이다.

기대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부정확한 정보 생성, 인간의 일자리 대체, 초거대 AI 산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걱정하는 의견도 등장했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관련 산업을 넘어 인류의 생활을 완전히 뒤바꾼 것처럼, 챗GPT가 쏟아 올린 변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앞으로 챗GPT가 섬광처럼 반짝이는 신드롬을 넘어 미래를 주도해 갈지 자못 궁금해진다. 🍌

성근한 봄이 되기를

앙리 마르탱

2월에서 3월로 달력의
 앞 숫자가 바뀔 때쯤이면
 나는 제일 먼저 옷장을 살핀다.
 겨우내 입었던
 무채색의 코트를 넣어두고,
 조금 더 밝은색의 외투를
 고르고 싶어사다.
 3월, 봄이 된다 한들
 온도가 급격하게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봄을 시작하는 시간의 문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색’을 고르는 고민과
 기쁨을 안겨준다.
 글 이소영



Vase of Flowers in a Garden, 1910, oil, canvas. Private Collection

글로벌 컬러 전문 기업 'Coloro'는 2023년 전 세계적인 유행을 주도할 컬러로 '디지털 라벤더'를 선정했다. 라벤더는 앙리 마르탱(Henri Jean Guillaume Martin)의 그림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열은 보랏빛의 컬러다.

흔히 보랏빛은 '웰빙'과 '현실도피'를 상징하는데, 정신 건강에 대한 현대인의 지속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가상 세계나 새로운 세계로의 도피를 꿈꾸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한다. 실제 라벤더와 같이 파장이 짧은 색상은 차분함과 평온함을 불러일으키며 상상력을 자아낸다.

하지만 보랏색은 의외로 자연에서 빠르게 찾기가 쉽지 않다. 흙은 누런빛, 숲은 검정빛, 하늘과 바다는 푸른빛, 나뭇잎은 초록빛, 생명체의 피는 붉은빛이다. 보랏색은 라벤더나 팬지꽃, 나팔꽃처럼 피기를 기다려야 하는 인고의 시간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보라를 '신비의 색, 보석의 색'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신비스러운 '예술가의 색'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은 '디지털 라벤더'라는 색상 이름을 상상도 못했을 테지만.

이소영 미술 에세이스트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조이뮤지엄 대표.
 <그림은 위로다>, <미술에게 말을 걸다>,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
 <칼 라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 등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앙리 마르탱은 당대 활동한 많은 인상주의 화가치고는 우리에게 낯설다. 아무래도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서는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모네, 르누아르, 드가' 등이 익숙할 테다. 기법 역시 인상주의보다는 분할주의, 즉 점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신인상주의 화가들에 가깝다(분할주의는 물감을 팔레트에서 혼합하지 않고 캔버스에 바로 찍어 바르는 기법으로 혼색을 쓰지 않기에 멀리서 작품을 보면 더욱 선명하게 각인된다).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사진기의 보급은 당시 화가들의 미래를 위협했다. 이에 많은 젊은 작가들은 '내 눈에 보이는 빛과 그림자를 화폭에 진실하게 표현하자'로 한계를 뛰어넘었다. 앙리 마르탱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그는 인상주의 선배 화가들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점묘법을 통해 대상을 포착하고 싶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직접 그리는 것, 그것이 인상파들이 도전한 과제였다. 그래서 인상파를 좋아했던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미술 비평가였던 에드몽 뒤랑티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인상파는 거의 언제나 보라색과 파란색 계통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당시 화가들의 그림에는 그림자가 보랏빛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많다. 오른쪽 작품 역시 세 명의 여성이 따뜻한 오후에 바느질을 하며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림자는 모두 보랏빛으로 표현되었다.



Sewing Scene under the Pergola at Marquayrol, 1902, oil, canvas. Private Collection



Madame Henri Martin under the Oleander of Marquayrol, 연도 미상, oil, canvas. Private Collection

19세기 후반 파리에서 활동하는 많은 남성 화가들이 여러 여성들과 스캔들이 나고, 본인의 부인을 두고도 많은 사랑을 탐닉했지만, 앙리 마르탱은 한 여인과 50년을 살았다. 그래서일까 앙리 마르탱은 한국에서 여성 팬이 많은 듯하다. 그는 모자가게에서 일하던 '마리'라는 한 여성에게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져 모자가게 옆 작은 방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마리 역시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화가인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을 했다. 마르탱은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을 그림으로 많이 남겼다.

1895년 마르탱은 파리 시청사의 장식화를 그리며 명성을 쌓아갔고, 말년에는 프랑스 정부에서 주는 '레종 도뇌르 훈장'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는다.

앙리 마르탱의 작품을 볼 때마다 무수히 많은 촘촘한 점들이 그의 인생과 사랑을 닮아 성실하다고 생각해왔다. 충실하게 한 점, 한 점 찍어가며 완성한 마르탱의 그림처럼 올봄을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성근하게 채우고 싶다. 🍷

하와이안 무스비로 나들이 분위기내기



하와이식 초밥으로 불리는 하와이안 무스비. 우리나라에서는 '스팸 주먹밥'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김밥보다 만들기가 간단해 요리에 영 재능이 없는 사람도 손쉽게 도전할 수 있다.
날씨가 제법 따뜻한 봄, 하와이안 무스비 도시락을 싸서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꼭 나들이가 아니더라도 점심 도시락으로도 안성맞춤이다.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푸드 스타일링 박정윤(노하우스 스튜디오 knowhow's studio)



재료 및 용량
밥 1공기, 통조림 햄 1캔, 달걀 3개,
김밥용 김 1장, 소금 약간
밥 밑간 소금 1/2t, 참기름 1t, 통깨

레시피

- ①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한다.
- ② 밥에 밑간 재료를 넣고 양념해 준비한다.
- ③ 햄은 1cm 정도의 두께로 썰어 굽는다.
- ④ 달걀은 풀어 소금을 약간 넣고, 달걀말이를 만들어 햄과 비슷한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 ⑤ 통조림 햄 통에 랍을 깔고, 그 위에 밥, 달걀말이, 햄 다시 밥 순으로 눌러주며 모양을 잡아준다.
- ⑥ 김밥용 김을 통조림 햄 넓이에 맞춰 잘라주고, ⑤의 무스비를 감싸 잘라 완성한다.



Cooking tip

김치 없이 못 사는 사람이라면 묵은지를 넣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칠맛 도는 하와이안 무스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한 샐러드나 제철 과일을 곁들이면 보기도 좋고, 든든한 한 끼 도시락이 완성됩니다. 🍡





봄 승어처럼
봄 바다 헤엄치는 섬
여수 거문도

1

육지에서 먼 섬이 있다는 건, 여행자에게 축복이다. 여수와 제주의 중간쯤에 자리한 거문도는 다도해의 최남단이다. 봄은 바다가 빠른 법이다. 학공치는 몸이 간지러운 듯 유영하고, 승어는 높이뛰기 선수처럼 튀어 오른다. 산에는 특~ 동백꽃이 지고, 수선화가 환하게 핀다. 섬 구석구석 걸으면서 거문도의 화려한 봄을 만끽해 보자. 글·사진 진우석 여행작가

녹산등대에서 만난 다정한 일몰

여수에서 출항한 배가 2시간 넘게 달려 거문대교 아래를 지나면, 호수처럼 잔잔한 거문도의 내해로 접어든다. 거문도는 서도, 동도, 고도 세 섬이 절묘하게 모여 있어 '삼도'라고 불렀다. 생김새는 서도와 동도가 마치 두 손이 가운데를 감싸듯 마주본다. 북쪽 바다와 만나는 지점은 병목처럼 좁고, 남쪽 바다는 자그마한 고도가 딱하니 버티고 있다. 세 섬이 둘러싼 바다는 그야말로 호수다. 이곳을 '삼호', '도내해(島內海)'라고 부른다. 삼호는 천혜의 항구 역할을 한다. 여객선은 우선 서도에 섰다가 고도로 간다. 서도에 서는 줄 몰랐다가 우르르 이동하는 사람들을 따라 내렸다. 우선 녹산등대에서 노을을 보기 위해서다. 녹산등대 가는 길은 널찍한 초원이 펼쳐져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속이 시원하다. 작은 언덕에는 돌을 들고 있는 '신지끼' 인어상이 있다. 신지끼는 상체는 여인, 하체는 물고기인 인어다. 섬사람들은 신지끼를 섬의 수호신으로 여겼다. 큰 풍량이 일어나기 전날 어김없이 나타나 절벽에 돌을 던져 이를 알렸다고 한다. 인어상에서 조금 더 오르면 녹산등대가 나온다. 등대에 서면 걸어온 길과 서도와 동도를 이어주는 거문대교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녹산등대는 일몰 명소다. 시나브로 서도의 무구나무섬으로 해가 진다. 저무는 해를 받은 바다는 오묘한 빛을 내뿜는다. 노을 속에서 낚싯배 한 척이 기름 떨어진 배를 유유히 끌고 가는 모습이 다정해 보인다. 첫날은 서도의 민박집에서 묵으며 섬 백반을 받았다. 유명한 거문도숙으로 만든 숙국으로 봄기운을 오롯이 충전했다.

기와집몰랑, '아 몰라 너무 좋아'

거문도의 최고 명소로는 기와집몰랑과 거문도등대를 꼽는다. '몰랑'은 전라도 사투리로 산마루라는 뜻이다. 바다에서 보면 이 능선이 기와집 영마루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침 일찍 덕촌마을에서 출발했다. 덕촌마을-불탄봉-기와집몰랑-거문도등대-삼호교 코스는 약 10km, 넉넉하게 4시간쯤 걸린다. 불탄봉은 거문도 최고봉이지만, 높이가 불과 195m로 만만하다. 덕촌마을에서 불탄봉까지는 완만한 오르막이다. 땅에서 올라오는 나른한 봄기운 받으며 천천히 40분쯤 가면 꼭대기에 다다른다. 정상에 널찍한 데크가 있어 조망이 시원하게 열린다. 주변은 온통 동백나무로 덮였다. 붉은 동백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절경이다. 능선은 부드럽다. 군데군데 나타나는 동백숲 터널에서 붉은 꽃과 눈 맞추고, 조망이 열린 곳에서는 멈춰서 '바다명' 하는 맛이 있다. 세 개의 돌탑을 지나면 기와집몰랑으로 들어선다. 거친 암릉과 그 사이에 빼곡하게 들어찬 동백나무가 어우러진다. 보로봉 직전에서 오른쪽을 보면 바다 쪽에서 불끈 튀어나온 기암이 보인다. 이곳이 유명한 신선대다.

- 1 거문도 최고 절경으로 꼽히는 기와집몰랑에서 바라본 거문도. 잔잔한 섬의 내해는 보석처럼 빛난다.
- 2 녹산등대 가는 길의 신지끼 인어상



2



동백숲을 헤치고 신선대 꼭대기에 오르자 시야가 거침없다. 멀리 거문도등대까지 서도의 서쪽 해안이 한눈에 펼쳐지고, 반대 쪽은 천길 벼랑이라 오금이 저린다. 다시 능선으로 돌아와 보로봉에 오르자 이번에는 북쪽으로 거문도 전경이 눈에 들어온다. 동도, 서도, 고도가 웅기종기 모여 삼호를 부드럽게 감싼다. 기와집몰랑을 지나면 점점 등대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다. '365계단'을 내려서 '목넘어'를 만난다. 거문도등대가 선 수월봉과 서도가 연결되는 지점으로 바람이 센 날은 파도가 길을 후려친다. 거센 바람을 맞으며 목넘어를 건너면 호젓한 동백숲길이 이어진다.

거문도등대 가는 길, 동백꽃과 수선화

동백꽃은 '나무 위에서 100일, 땅 위에서 100일 핀다'라는 말이 있다. 매달린 꽃보다 길에 떨어진 동백이 자꾸 발길을 붙잡는다. '툭~' 소리와 함께 동백이 떨어진다. 가장 눈부신 순간에 스스로 목을 꺾는(문정희, 동백꽃)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처연하다. 거문도등대는 1905년 남해안 최초로 세워졌다. 100년이 훌쩍

- 3 녹산등대에서 바라본 노을. 서정적인 일몰 풍경 속 두 척의 낚시배가 다정하게 느껴진다.
- 4 거문도 가장 북쪽에 자리한 녹산등대
- 5 거문도역사공원 안의 영국군 묘지. 영국군은 2년 동안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거문도 여행 가이드

기와집몰랑 트레킹, 거문도등대와 녹산등대 산책, 거문도역사공원의 영국군 묘지 등을 둘러보면서 거문도를 즐길 수 있다. 거문도 내해인 삼호에 펼쳐지는 은은한 야경은 덤이다.



교통

여수연안여객터미널에서 거문도행 배를 탄다. 거문도에서 나가는 배는 오전 8시에 있다. 시간은 2시간 20분쯤 걸린다. 엘에스쉽핑(061-662-1144), 고흥 녹동항에서도 배가 다닌다. 녹동 출발 오전 7시, 거문도 출발 오후 1시 30분. 평화해운(061-843-2300)



숙소

고도에 민박과 모텔이 몰려있다. 패밀리모텔(061-666-2333)이 시설이 좋다. 서도에는 민박만 몇 개 있는데, 우리식당민박(우리슈퍼)(061-665-8339)이 괜찮다.



맛집

고도의 강동횃집(061-666-0034)과 총청도횃집(061-665-1986)이 유명하며, 싱싱한 회와 백반을 먹을 수 있다. 서도의 우리식당(061-665-8339)은 백반을 잘한다.



거문도 ECO TIP

동백꽃과 수선화 관찰



는 다년 살이 풀이다. 속명인 나르키소스(Narcissu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는 청년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거문도등대를 산책하며 동백꽃과 수선화를 관찰해 보자. 동백은 다른 꽃과 달리 꽃송이 전체가 떨어진다. 꽃송이를 살펴보면, 붉은 잎 가운데 노란 꽃술이 가득해 놓여 있다. 동백의 꽃말은 '그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수선화는

갯바위 생태휴식지



다. 1년이 지나자 시나브로 갯바위가 깨끗해지고, 해안 생태가 살아나고 있다.

거문도는 따뜻한 대마 난류가 흐르는 덕분에 사계절 물고기들이 많아 낚시의 천국으로 통한다. 그동안 갯바위는 낚시꾼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거문도 전 해안에 생태휴식제를 시행했



넘었다. 옛 등대는 왼쪽 절벽 위에 자리하고, 지금은 높은 새 등대가 밤을 밝힌다. 등대 뒤편의 관백정 정자는 백도가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관백정에 서니 수평선에서 눈부신 백도가 아스라하다.

거문도등대에서 꼭 봐야 할 게 수선화다. 등대 아래의 험준한 벼랑에서 피는데,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하지만 찾기 어렵고 벼랑이라 위험하기도 하다. 등대 관리소에서 잔디밭에 심어놨기 때문에 이를 찾아보면 된다. 무릎을 굽히고 수선화와 눈을 맞추고 향기를 맡아본다. 진하고 깊은 향이 밀려온다. 여섯 개의 하얀 꽃잎 가운데 금색 꽃은 봉긋 솟았는데, 이 모습 때문에 금잔옥대(金盞玉臺)라고 불린다. 동백을 원 없이 보고, 수선화까지 만나니 봄이 내 안에 가득 찬 느낌이다. 등대로 되돌아가는 길, 어둡한 숲길에 떨어진 동백꽃들이 붉은 등을 밝힌다. 저 등이 꺼지면 봄도 떠나리라.

거문도의 가장 변화가인 고도에는 영국군 묘지가 있다. 영국 함대가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봉쇄한다며 1885~1887년 사이 약 2년 동안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이를 '거문도 사건'이라 부른다. 그들은 거문도를 '해밀턴 항구'로 불렀다. 거문초등학교 옆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해밀턴 테니스장'과 영국군 묘지를 만날 수 있다. 묘지 근처에는 노란 유채와 수선화가 서로 소곤거린다. 바다에서는 학꽂이가 유행하고, 승어가 물 밖으로 튀어 오르며 봄을 노래한다. 🌸

다큐멘터리 <널 지키겠다는 약속> 가수 윤도현의 유쾌한 환경운동

예전처럼 변함없이 공연하고, 운동하고, 캠핑하며 일상을 산다. 다만 생활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쓰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짬날 때마다 재능을 활용해 자연 보전 활동에 힘을 보탤 뿐이다. 윤도현이 다큐멘터리 <널 지키겠다는 약속>을 통해 보여준 환경운동은 무겁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고 유쾌했으며,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았다. 글 강진우 사진 Wavve <널 지키겠다는 약속>

윤도현의 자연 친화적 일상을 담아낸다

윤도현이 수년째 환경운동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YB의 공연장에서는 일회용 용기에 담긴 생수를 팔지 않는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함이다. 팬들에게만 실천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중 도시락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뒤부터 공연 준비로 한창 바쁠 때에도 도시락을 시키지 않는다. 대신 공연장 인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정수기를 이용해 텀블러로 물을 떠서 마신다. 환경운동가라고 하면 일상 속에서도 거창한 무언가를 실천할 것 같지만, 윤도현의 일상은 생각보다 평범하다. 교외에서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도심 속 생태공원과 뒷산을 다니며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신다. 동물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 모이를 가득 넣은 새집을 만들어서 걸어 놓는다면, 식량과 물을 산 한편에 마련해 놓고 카메라를 설치해 동물들이 오가는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재미있게 관찰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캠핑을 떠나며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콩고기 패티로 저녁을 즐기고, 번개탄 대신 커피박으로 만든 펠릿으로 불을 지핀다. 작년 12월 OTT를 통해 공개된 다큐멘터리 <널 지키겠다는 약속>은 이렇게



윤도현의 활동과 일상을 잔잔하게 담아낸다. 그와 함께 4년째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는 전옥배 PD가 연출을 맡았기 때문일까. 윤도현은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듯 환경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생각을 편안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환경 보호에 대한 윤도현의 결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됐다. 어릴 적 자연을 느끼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던 일종의 숲속 아지트가 있었는데, 성인이 된 뒤 문득 생각이 나서 그곳에 가 보니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있는 폐허로 변해 있었다. 학창 시절 큰 위로를 안겨줬던 힐링 장소가 무참히 파괴된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결심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실천하겠노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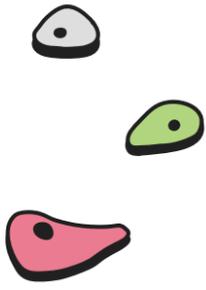
결코 어렵지 않은 '널 지키겠다는 약속'

윤도현은 일상 속 실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틈날 때마다 환경 보호와 관련된 일에 힘을 보태왔다. 매항리 바다를 살리기 위해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 그의 노래 '흰수염고래' 뮤직비디오를 촬영했고, 가수로서의 재능을 살려 해양 환경 보전 캠페인송 '지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작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보전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화성 습지 홍보대사를 맡는 등 꽤 많은 활동을 펼쳤다. 그럼에도 윤도현의 환경운동에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환경에 대한 거대한 담론이나 대형 캠페인을 벌이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윤도현식 환경운동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한다. 최근 기후변화의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빨라지면서 많은 이들이 환경에 대해 걱정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환경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는 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환경운동이라는 말의 무게 자체가 그리 가볍지 않거니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널 지키겠다는 약속>에서 윤도현이 보여준 환경운동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다. 캠핑을 떠날 때 일회용 수저 대신 집에서 쓰는 수저를 가져와 사용하고, 페트병 대신 텀블러로 물을 마시며, 도시락 대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도심 속 공원과 숲에 관심을 갖고 자주 찾아가는 일. 이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히 훌륭한 환경운동임을, 이것이 지금껏 우리를 넉넉하게 품어준 너(지구)를 지키는 약속임을, 윤도현은 담담하지만 무겁지 않은 어조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



편식거야!

엔지니어에게



건강과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닌
운동 자체가 좋아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함께 땀 흘려 운동하는 시간 속에서
유대감을 쌓는다. 박건후 주임과 엄태경 대리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자타공인 한난의 운동 마니아들이 만났다.
오늘 도전 종목은 바로 클라이밍!

글 최선주 사진 조병우



초대합니다, 클라이밍의 세계로!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날씨도 좋아지면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간 못 갔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취미 활동도 즐기는 추세다. 특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은 희소식이자 그간의 갈증을 풀기에 더할 나위 없다.

평소 운동을 좋아한다는 박건후 주임도 회사가 아닌 특별한 공간에서 취미 활동을 즐기기 위해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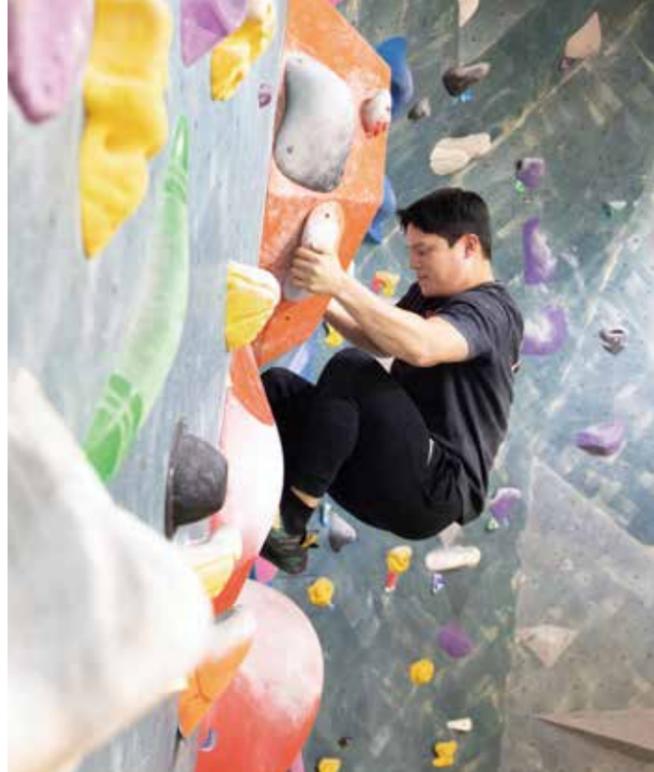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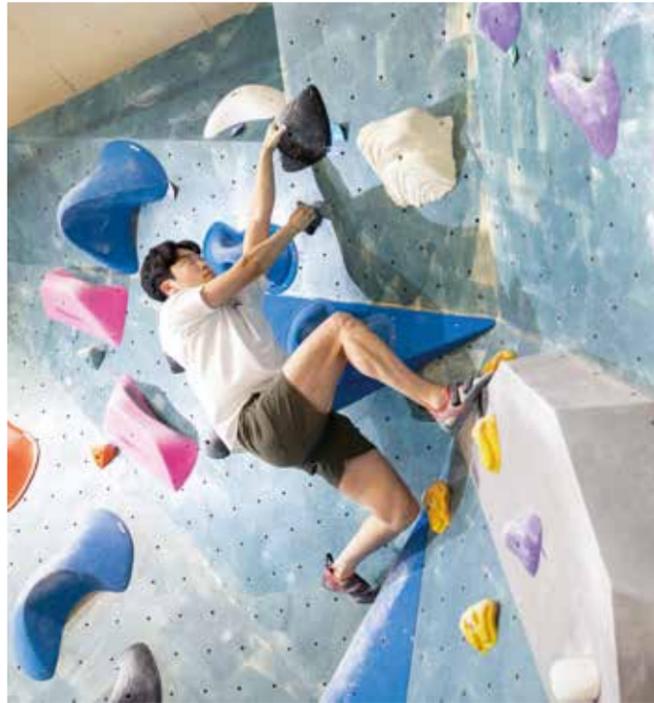
“제가 볼링과 클라이밍을 좋아하는데요. 마침 사보에서 클라이밍 체험할 사람을 찾더라고요. 보자마자 ‘이건 내 거다!’ 싶었죠. 혼자 하면 재미없을 테니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엄태경 대리님께 같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용인지사에서 일하면서 친해진 박건후 주임과 엄태경 대리. 두 사람은 운동은 좋아하지만 각자가 매력을 느끼는 종목은 달랐기에 언제고 시간이 나면 함께 좋아하는 운동을 해보자고 약속했단다. 마침 시간,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진 덕분에 함께 클라이밍장에 올 수 있었다.



미래사업처 탄소중립정책부
박건후 주임

건설처 프로젝트3부
엄태경 대리



오늘 덕분에 즐거운 체험을 하고 가네.
나 말고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먼저 제안해 줘서 고마워.
다음에는 꼭, 크로스핏 같이 하자~!

엄태경 대리

“저는 클라이밍은 처음이에요. 크로스핏을 좋아해서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건후가 좋아하는 클라이밍을 먼저 하게 되었네요. 기대됩니다.”

오르는 만큼 따르는 성취감

실내 클라이밍은 홀드를 잡거나 딛는 손과 발의 모양에 따라 기술이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암벽에 설치된 홀드를 활용해 코스를 어떻게 오를지 잘 계산해야 한다. 강사의 설명에 이어 박건후 주임도 엄태경 대리가 행여 다칠세라 당부를 잊지 않는다.

“모든 운동이 그렇겠지만 클라이밍은 특히 안전이 중요해요.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올라오면 됩니다.” 듣고 있던 엄태경 대리의 눈빛이 꽤 진지하다.

“제가 운동하다가 많이 다쳤거든요. 자잘한 부상을 많이 당

해서인지 안전에 대해 더 신경 쓰게 되네요. 다치지 않고 잘해 보겠습니다.”

암벽화를 신고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초크가루를 손에 비벼 바른 뒤, 홀드를 잡고 오르는 두 사람의 눈빛이 꽤나 진지하다. 클라이밍장에는 빨강-주황-노랑-초록-파랑-남색-보라-분홍-갈색-흰색-회색-검은색의 등급이 있었는데 초보자는 보통 빨강에서 노랑까지의 등급을, 중급자는 갈색에서 회색까지의 등급을 웃돈다고.

“형은 오늘 처음 했는데도 제 생각엔 ‘파랑’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운동 신경이 좋아서 잘 하네요.” 박건후 주임의 말을 들던 엄태경 대리는 생각이 다른 듯하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엄태경 대리의 앓는 소리에 클라이밍장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함께하니 즐거움은 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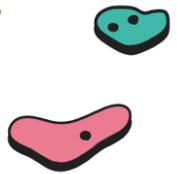
“잠깐만 쉬자.” 엄태경 대리가 박건후 주임에게 쉼을 제안한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체험을 하기 한 시간 전부터 와서 방법을 익히며 몸을 풀고 있었다고. 그러니 힘들 수밖에. “이미 체력을 다 쓴 것 같아요. 저 친구는 클라이밍에 익숙하다 보니 거의 날아다니네요. 하하.” 엄태경 대리는 박건후 주임의 클라이밍을 바라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다.

대뜸 제안했는데 함께해 줘서 고마워요. 재밌었길 바랍니다.
크로스핏이나, 클라이밍 말고도 좋아하는 운동같이 하면서,
즐겁게 회사 생활하자고요!

박건후 주임

클라이밍 '꿀Tip'

- ① 암벽화 | 홀드 또는 벽과의 마찰을 높여준다. 보통 실내 클라이밍장에는 준비가 되어있다.
- ② 초크가루와 초크통 | 홀드를 잡을 때 손에 바르는 초크가루.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준다.
- ③ 클라이밍 테이프 | 손가락 인대와 건 등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홀드에 의해 피부가 찢어지거나 굳은살이 벗겨지는 등의 부상을 막을 수 있다.
- ④ 삼각대 | 요즘 '클라이머'들에게는 필수품. 클라이밍하는 모습을 셀프로 촬영해 자세도 바로잡고, SNS에 올리며 취미를 공유한다고. 대부분의 클라이밍장에서 대여 가능.





김은지 대리

이재훈 팀장

둘째 이유중 군

첫째 이서중 군

바람이 나긋하더니 '훅'하고 봄이 들어왔다. 곱단한 한복을 입은 여행객들의 웃음소리가 두둥실 날아다닌다. 모처럼 환한 커플룩을 맞춰 입은 우리도 꽃같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기를!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전주에서 이재훈 팀장과 김은지 대리 가족이 특별한 시간여행을 하고 왔다. 글 윤진아 사진 정우철

꿈틀꿈틀 떠들썩한 한옥마을의 봄

경영지원처 인사부 이재훈 팀장
판교지사 고객지원부 김은지 대리 가족

새봄, 우리가 사랑한 1초들

며칠 새 봄꽃이 올망졸망 부풀어 올랐다. 찬바람과 더운 공기가 뒤엉킨 계절을 비집고 나와 다시 새 삶을 일깨워줄 시간! 흐드러진 꽃 무더기 속으로, 제 키를 훌쩍 넘는 기와담장 너머로, 형제가 나란히 발을 치켜들었다. 아이가 새 문턱을 용기 있게 뛰어넘는 모습은 언제 봐도 몽클하다. 매일 집에만 있던 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아빠 엄마는 어쩌면 아이들보다 더 설레는 마음이라고 했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배가 많이 부른 상태로 왔던 전주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종종 그리웠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뒤로는 멀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못 했는데, 그새 훌쩍 자라 초등학생이 된 첫째, 예비 초등학생 둘째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못다 한 대화를 나누는 가족의 표정이 봄꽃처럼 환하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첫 한옥스테이 숙소는 한옥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해 전주 명소를 두루 탐험하기에 제격이다. 마루 아래 가지런히 놓인 고무신, 툇마루 위 물레, 한국식 경대 등등 신기한 전통 소품의 행렬에 아이들은 이미 마음을 빼앗긴 듯하다. 은은하게 스며드는 고가구 향기에 잠시 넋을 놓았다가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만끽하러 마당으로 나갔다.

옛 시간의 한 덩어리를 떼어 옮겨놓은 듯한 전주한옥마을은



“부족한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낳아준 아내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서로를 위하여 백년해로해요.”

이재훈 팀장

한옥 700여 채가 밀집한 국내 최대 한옥마을이다. 흙과 돌을 섞어 만든 흙돌담, 장독대와 바깥행랑채, 솟을대문을 배경으로 아이들의 사진을 담은 김은지 대리의 손길이 분주하다. 본가에서 큰 딸인 김은지 대리는 결혼 전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한 사진사로 활약했다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은 아이들과 남편의 전담 사진사가 됐다. 늘 가족을 챙기는 아내의 사진은 이재훈 팀장이 열심히 찍어주고 있다. 어느덧 결혼 7년 차를 맞은 부부의 역사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

“제가 다른 부서로 가면서 당시 신입사원이던 김은지 대리가 후임으로 왔어요. 인수인계하며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는데, 단아한 인상과 침착한 성격에 반해 ‘아! 내가 결혼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낮가림 많은 이재훈 팀장이지만 ‘내 반쪽’이라는 직감에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었고, 사내 보안을 위해 ‘은지’의 ‘지’, ‘재훈’의 ‘훈’의 이니셜을 따 ‘JH’라고 연락처를 저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가슴 뛰는 연애가 시작됐다. 한겨울에 올린 결혼식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식 준비를 위해 새벽같이 출발했는데, 혹한 때문에 기계 결함

전주의 또 다른 매력 즐기기



전동성당

호남 최초의 서양식 근대 건축물로, 1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품고 있다. 로마네스크+비잔틴 양식의 고풍스러운 건물이 전통 한옥 사이에서 오묘한 조화를 이룬다. 높이 솟은 고탑 아래 종탑이 있으며, 사진에 성당을 꼭 채워 담으면 유럽에서 찍어왔다 해도 모른다.

주소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남부시장

전주 하면 떠오르는 비빔밥은 한옥마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지만, 최근엔 SNS를 타고 경기전 일대의 육전과 문어꼬치 등 길거리 음식들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 풍남문 뒤편 남부시장에 가면 피순대, 순대국밥, 콩나물국밥 등 전주 대표 먹거리가 가득하다.

주소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1길 17



이 생겨 차 뒷문이 잠기지 않더라고요. 신부인 제가 차 문을 부여잡고 분당에서 강남까지 30분 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우리, 무사히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절로 들었죠(웃음). 긴장 늦추지 말고 잘 살라는 하늘의 계시라고 애써 마음을 다스렸던 기억이 나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변신은 무죄, 그 정성에 감동한 여자의 폭풍눈물도 무죄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재훈 팀장이 부른 축하에 김은지 대리는 이벤트 내내 눈물을 흘렸고,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했지만 울다 웃다 행복해지는 아내의 모습에 가슴 벅근한 보람을 느꼈다. 이날의 즐거운 이벤트처럼 부부는 어떤 난관도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꿈꿔온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해나가는 참이다.

기지개 켜고 문턱을 넘어보렴!

다른 햇살, 다른 공기가 차오르는 이맘때면 경기전에는 흥매화가, 오목대에는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한옥마을 일대를 새단장한다. 시대를 건너듯 옛길을 천천히 걸으며 전주가 품고 있는 조선을 만나러 갔다. 곤룡포 자락을 휘날리며 역사 속에 스며든 여행객들의 모습에 덩달아 웃음이 난다. 경기전 어진박물관에서 마주한 태조는 풍채가 좋고 낮빛이 밝다. “경기전은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궁궐이라는 뜻이야.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하는 건 세종이도 알고 있지?” 태조의 용안을 마주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빠가 알기 쉽게 역사를 풀어놓는다. 길을 사이에 두고 경기전과 마주한 전동성당도 아빠 엄마의 설명을 듣고 나면 더욱 멋지게 느껴진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몰랐던 역사가 숨 쉬고 있어 저희도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입니다. 오늘 처음 배운 전통놀이에 흠뻑 빠져 제기가 땅에 떨어지지만 해도 웃는 아이들 덕분에 없던 힘도 솟아나네요(웃음).”

김은지 대리는 최근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다.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겼고, 곧이어 2년 터울의 둘째를 가진 터라 여유 있는 신혼생활을 경험해보진 못했다. 맞벌이하면서 양가 도움 없이 육아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다.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의 서종이는 아빠를 두루 닮았지만 머리카락만큼은 엄마의 생머리를 지녔다. 불임성 좋고 애교 많은 유종이는 엄마를 닮았지만 머리카락은 아빠의 곱슬머리를 가졌다. 둘을 사이좋게 빼닮은 아이들이 아빠 엄마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처럼 실컷 웃고 살게 해주고 싶다. 손 꼭 맞잡고 우리만의 역사를 일구는 가족 곁으로 환한 봄기운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

“회사 업무가 바쁘데도 가족을 알뜰살뜰 챙기는 남편, 사랑합니다! 다른 듯 닮은 우리, 올해도 힘내서 종종이와 건강한 웃음 나누며 살아요.”

김은지 대리



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다



듣는 서점은 한나 직원이 직접 책을 읽어주는 코너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따뜻·한나> 웹진에서 박경록 대리가 읽어주는 <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사업처
신재생사업부
박경록 대리

Audio

Book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끊임없는 노동을 하며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느라 자신을 돌볼 틈도 없어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이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소로처럼 독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권한다'라는 문구가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다> 함께 읽어 볼까요?

글 편집실 녹음 박경록 대리 사진 조병우

열정 - 모든 살아 있는 존재에 대한 따스한 사랑

소로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단지 그의 문장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 전체에 매혹된다. 나는 소로의 수줍은 미소, 고색창연한 어휘력, 고전에 대한 탁월한 독해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탐욕으로부터 무한히 자유로웠던 그의 놀라운 소박함이 좋다.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왜 이렇게 입을 만한 옷이 없나'라는 투덜거림이 솟아나올 때, 나는 소로의 속삭임을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월든>에서 옷차림에 지나치게 신경쓰고 돈을 많이 쓰는 우리 문명인의 과도한 낭비심을 단칼에 날려버린다. 옷이 낡아서 해지면, 그저 묵묵히 뒤집어 입으면 된다고. 그래, 맞아. 옷이 닳거나 싫증나면 그저 뒤집어 입으면 되는데, 우리는 옷이 해지기도 전에 다른 옷을 사기 위해 '초록색 검색창'을 뒤지고 있지. 해마다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버려지고 낭비되는 옷감과 환경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하면, 옷장에 옷을 쌓아두고 또 새로운 옷을 찾는 현대인의 소비지상주의가 부끄러워진다. 47~48p 중에서



뼈에 가까운 삶이 가장 달콤하다

"뼈에 가까운 삶이 가장 달콤하다"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바로 마음속에서 커다란 울림이 전해졌다. 여기서 '뼈'란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집도, 우리의 삶도, 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가벼워지고, 간결해지고, 투명해져야 하지 않을까. 영혼의 필수품을 사는 데에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더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지구를 위해 더 적은 물품을 소비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필요 이상의 것들'이 우리를 뼈, 즉 가장 간소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전에. 옷장을 가볍게, 냉장고를 가볍게, 위장을 가볍게. 여행 가방을 가볍게, 욕실 선반을 가볍게, 화장대를 가볍게. 그 모든 것을 점점 가볍게 하는 대신, 입을거리를 무겁게, 행복한 시간을 다채롭게,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미소 짓게 하는 삶을 실천하자. 244p 중에서



Book Comment

이 책을 읽고 보니,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애쓰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갖지 않아도, 조금 가볍게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말이죠.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시선, 너무 많은 욕심... 우리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살아봅시다. 조금 어렵다면 <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다>를 펼쳐보세요. 많은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



비잔티움일산 & 고양사업소 운영부 고객기술지원과

안정적 열 공급을 위한 신뢰의 '어제'에서 상생의 '내일'로

주택 관리는 집 본연의 기능이 매 순간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이끄는 일이다.

'관리'라는 단어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긴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춰온

고양사업소 운영부 고객기술지원과와 비잔티움일산은 '주거의 안정'을 이정표로 삼고 동행하고 있다.

입주민들에게 난방을 공급하는 데 힘을 모으는 이들의 파트너십을 들여다본다.

글 김주희 사진 정우철



세대 수

2개 동 550세대



입주 연도

2005년



열 사용량 2022년 기준

2,755 Gcal/h



열교환기 용량

2,927 Mcal/h

난방 2기, 급탕 4기

“현장에서 열심히 애써주신 덕분에
지역난방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고양사업소 운영부 고객기술지원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자리한 비잔티움일산은 2005년 첫 입주자를 시작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1, 2단지 2개동에 걸쳐 1인 가구부터 가족 단위까지 총 550세대가 거주 중이며, 17가지 타입의 면적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공간 구성과 가구 형태가 다양한 만큼 다채로운 편의 시설을 제공하며 많은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올리고 있다. 골프연습실과 피트니스 시설, 공부방, 에어로빅실, 유아 놀이방 등을 운영 중이다. 입주민들이 멀리 나서지 않고도 단지 안에서 여가 및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최적의 주거 환경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일산호수공원을 비롯해 고양종합터미널, 대형마트 등이 인근에 자리한 데다 교통편도 편리하다.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등과도 가깝다.

비잔티움일산의 설비 및 시설의 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이동국 기전과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운영부 고객기술지원과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열 공급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된 적이 없을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는 중이다. 이동국 기전과장은 고양사업소의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관리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장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양사업소에서 평소 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해준 점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설비 계통도와 원리를 비롯해 설비 사용법, PDCV와 열교환기 등 특정 설비 관리법을 알려주는 교육에 참여하며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원 사례를 공유해주는데, 이를 통해 혹시 모를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있지요.”

고양사업소는 난방 설비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비롯해 1년에 한번 기계실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팬데믹 이전에는 밸브 등 설비 제작사 생산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설비마다 제작사가 다른 만큼 실무자들이 설비를 능숙하게 다루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이동국 기전과장은 또한 고양사업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사업소-관리자-사용자를 잇는 선순환 체계

고양사업소와 비잔티움일산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도 소통을 이어나간다. 고양사업소는 난방 설비 관리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다. 이동국 기전과장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북도 고양·파주 협의회 회장직을 도맡고 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전기기술인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교류하는 단체로 이동국 기전과장은 고양사업소와 관리자들을 잇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고양사업소 정하림 대리는 소통의 연결 고리를 이어주는 이동국 기전과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관리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관련 정보나 관리 노하우 등도 공유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설비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고객 만족도가 달라지는데요.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전문성을 발현하면 입주민들 또한 지역난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동국 기전과장님은 지역 내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호흡을 맞춰온 고양사업소와 비잔티움일산은 지속적으로 상생할 계획이다. 최근 고양사업소로 부임한 윤우식 팀장은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비잔티움일산은 기계실에 누수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우수한 고객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노후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기계실 관

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양사업소 또한 현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불편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길 기대합니다.”

견고한 공조와 파트너십으로 손을 맞잡은 고양사업소와 비잔티움일산은 안정적인 열 공급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동국 기전과장은 또한 고양사업소와의 시너지를 확산했다.

“지역 내 설비 관리자들이 모이면 고양사업소가 참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 앞으로 현장 관리자와 고양사업소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이 365일 24시간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오랜 세월 함께해온 고양사업소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습니다.”

비잔티움일산 이동국 기전과장



왼쪽부터 고양사업소 윤우식 팀장, 비잔티움일산 이동국 기전과장, 고양사업소 정하림 대리

KDHC NEWS

01

한남, 'EERS'로 대국민 에너지 효율향상 나선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및 노후 사용자시설 효율개선을 위해 올해 효율향상 지원사업(EERS)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2월 28일 밝혔다.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는 에너지 절감 목표를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수요 측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한남은 올해 22,380Gcal의 수요 측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차압유량조절밸브 보수지원·급탕예열 열교환기 설치지원·고온설비 단열 개선지원 등 총 8개 효율향상 사업에 13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한남은 1월부터 19개 지사에서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단을 운영해 지난 10일까지 전국 132개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 개선 방안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와 연계해 노후·취약 사용자에 대한 효율향상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남은 노후·취약 사용자시설 대상 안전점검과 사용자시설 효율화 개선 사업도 매년 시행하고 있다. 📌

02

한남, 취약계층 특별요금 감면 신청·접수 지원금액 월 최대 14만 8천 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4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제도는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특별요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 8천 원, 4개월간 최대 59만 2천 원이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 기간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접수는 3월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다. 지원 대상 자격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오는 8월말쯤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사는 기존 정액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중증장애인이거나 상이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동일 기간 정액지원 금액을 두 배로 올린다. 기존 요금 감면 금액을 87억 원에서 105억 원을 추가 증액하는 것으로, 총 192억 원을 에너지 복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용기 한남 사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가중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요 소식

MAR+APR 2023

03

철저 대비로 안정적 열공급 국민 따뜻한 겨울나기 기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장의 4대 경영방침 중 하나인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경영진 현장 점검, 열수송시설 긴급자재 보관소 구축 등을 통한 전사적 안전경영에 총력을 쏟고 있다.

먼저, 지난해 11월 28일 취임한 정용기 사장은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한남 분당사업소 열수송관 공사 현장과 판교지사 열생산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한파에 대비해 재난관리 대응 태세와 작업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 경영진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사업장별 매일 1회 특별점검과 설비 고장에 대비한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운영했다. 한편, 한남은 열수송시설 고장에 대비해 긴급자재의 신속한 조달을 위한 약 1,024㎡(310평) 규모의 긴급자재보관소를 평택지사 내에 운영 중이다.

긴급자재 필요시 신속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전용 운반트럭을 상시 배치해 선주문 후제작 방식으로 평균 두 달 이상 소요되던 열수송시설의 조달 기간을 4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안전 강화 노력을 통해 한남은 지난겨울 국민이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난방 열공급을 차질 없이 수행했으며, 기획재정부 안전관리등급제 3년 연속 최고등급, 고용노동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및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안전한 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등 안전 관련 외부 평가에서 높은 성적표를 받았다. 📌

04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교육 시행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열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유지보수 전문 기술교육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2023년도 열사용시설 관리자 온라인 기술교육(한남 스쿨)을 시행한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한남은 열사용시설 관리자의 설비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기술교육을 2009년부터 15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만 천 명 이상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열사용시설 기본이론, 유지보수 실무, 고장 조치 등 총 15차시로 구성되며, 학습 신청자는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30일간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격월(총 4회)로 시행되고, 한남이 공급하는 아파트 및 건물의 열사용시설 관리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 1회차 기술교육을 접수(3월 20일~4월 23일) 중이다. 집단에너지협회를 통해 28개 타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지역난방 열사용시설 관리자에게도 무상으로 제공돼, 지역난방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한남 관계자는 "온라인 기술교육(한남 스쿨) 수강을 통한 열사용시설 관리자의 역량 강화로, 지역난방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1+2월호 독자의견을 소개합니다

조*현 님

칼럼을 통해 한난의 밝은 미래, 국민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내일을 엿볼 수 있어 흐뭇했습니다. 기사 속 다짐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과 도전을 이어나가 주세요. 또한 상생과 소통의 힘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로 도약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추*원 님

기사가 매우 재미있고,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एको 트레블'에 소개된 연대도의 아름다운 출렁다리와 아기자기한 마을길, 호젓한 오솔길인 지갯길 그리고 몽돌 해변 옆 기암 사이의 노을까지. 정말 멋진 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분에 힐링했습니다.

강*숙 님

'이런 문화' 칼럼 중 '요즘 사람들의 운동 트렌드'에 나온 플로깅에 대해 공감합니다. '플로깅'은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환경보호에도 앞장설 수 있잖아요. 깨끗한 환경은 건강한 내일을 약속합니다. 많은 분이 플로깅, 제로웨이스트 운동 등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환경문제는 곧 우리들의 문제니까요.

김*용 님

미술관에서 작품 지킴이 봉사활동을 하며 인생 2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림의 위로'를 보게 되었어요. 미술 소양과 상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봉사활동에도 도움이 되고요. 덕분에 관람객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어요.

독자와 함께하는 <따뜻:한난> 이벤트

event

①

생각 보태기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짧은 편지를 전해보세요. 선물 문화상품권 1만 원

독특 앙케트

'늘 지니고 다니는 물건은 무엇인가?' 질문을 통해 답변해 주세요. 선물 문화상품권 5천 원

event

②

웹진에서 따소미 찾기

웹진에 '화분에 물주는 따소미'가 숨어있습니다. 찾아주세요! 선물 문화상품권 5천 원

event

③

<따뜻:한난>보고 의견 남기기

좋았던 기사, 소개되었으면 하는 내용 등 <따뜻:한난>을 읽고 의견 남겨주세요.



모든 이벤트는 <따뜻:한난> 웹진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웹진'을 검색해 주세요.

소통의 장 한난 SNS로 모세요~!



혹시 따뜻해진 날씨에 춘곤증이 몰려오지는 않나요?
그럴 때 잠깐 한난 SNS에 접속해 보세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가 가득하답니다.

봄 사랑 벗꽃 말고 미세먼지?



YouTube
www.youtube.com/kdhcmedia



내가 겪은 에너지에 대한 모든 썰을 터놓고 이야기 해보는 방구석 세대별 공감 토크쇼, 난 알아요! 난 알아요에서 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0대, 30대, 50대가 모여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여보시죠!

나의 최애, 친환경으로 소장 가능?!



NAVER blog
blog.naver.com/kdhc2017



CD, LP, 앨범 등의 음반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함께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 음반도 친환경이 대세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음반 시장에서 재생 종이를 활용한 포장·화보와 플라스틱을 제거한 소재로 앨범을 구성하며 친환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끼기 꿈드림 대학생 기자단



facebook
www.facebook.com/FKDHC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꿈드림 대학생 기자단 11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꿈드림 기자단 11기는 유튜브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해요. 열정 가득한 꿈드림 기자단 11기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따끈한 지역난방, 요금 계산방법



Instagram
www.instagram.com/kdhc_on



난방 요금 상승 소식에 부담이실 텐데요. 지역난방 요금 계산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효율적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따소미가 알려주는 핵심 공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들 한난 인스타그램으로 와서 알고 가세요~! 🍷